



▲ 글로벌캠퍼스 신본관 기공식에 참석한 주요 내외 귀빈들이 기공식의 마지막 순서인 시삽식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캠퍼스의 중심축 세워진다

대운동장서 신본관 기공식 열려...2014년 완공 예정

“하나, 둘, 셋 하면 흠을 퍼서 시삽대 앞으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9일(화) 글로벌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신본관 기공식이 열렸다. 주요 내외 귀빈과 학생들이 참석한 기공식은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사회는 강기훈 글로벌캠퍼스 행정지원처장이 맡았다.

신본관의 설계는 ㈜진아건축도시가 맡았고 △두산건설 △미동이엔씨 △대림&S가 시공을 진행한다. 2014년 6월에 완공 예정인 신본관은 글로벌캠퍼스 대운동장에 건축되며 규모는 지상 11층과 지하 1층, 건축면적 약 22,400㎡(6,777평)에 달한다. 신본관 옆에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된다. 세부시설로는 △수업공간 △전자열람공간 △연구 및 행정공간 △복지 및 공용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실용외국어 전용 강의실, 국제세미나실을 비롯한 수업공간에서는 2,0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또 전자열람공간에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트북열람실, 스터디룸 등이 설치된다. 교수·강사의 연구실 및 휴게실 외에도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겸용 컨퍼런스홀 △카페테리아 △스카이

라운지 등의 건축 또한 예정돼있다. 이날 기공식을 참관한 박하얀(통번역·영어 10)양은 “부족한 독서공간을 보충할 공간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전했다.

기획건설팀에서도 “교무처, 학부처와 함께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신본관 건설 계획을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기공식을 시작으로 우리의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신본관은 좋은 건축자재와 최고의 시설을 겸비하며 최대한 학생들과 교수진의 의견을 수렴해 글로벌캠퍼스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기공식은 주요 내외 귀빈의 소개로 시작했다. △이덕선 미주동문연합회 이사장 △조명덕 범대 명예동문 △권순환 총동문회장 △김동선 초대총장 등의 많은 귀빈이 기공식에 참석했으며 축사를 전했다. 이날주 이사장은 “신본관은 글로벌캠퍼스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박철 총장은 “신본관 기공식은 322억 원이 투자되는 외대 건축 사상 가장 큰 사업”이라며 “많은 분의 도움으로 긴 시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오늘을 맞이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후 권순환 총동문회장은 “신본관 건축은 글로벌캠퍼스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돕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축사를 전했다. 이에 이현성(통번역·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신본관 착공 이후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총학생회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가 끝난 후 마지막 순서인 내외 귀빈 시삽이 진행됐다. 내외 귀빈들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한 후, 흠을 퍼서 시삽대 앞으로 뿌림으로써 신본관 건축의 시작을 알렸다.

한편 신본관 건설을 추진한 기획건설팀에서는 “△교무처 △학생복지처 △행정지원처를 비롯한 학교행정기관에서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신본관 건설 계획을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기공식을 시작으로 우리의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신본관은 좋은 건축자재와 최고의 시설을 겸비하며 최대한 학생들과 교수진의 의견을 수렴해 글로벌캠퍼스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김경보 기자 86kimseoul0923@hufs.ac.kr

학생자치활동의 꽃, 축제는 어디로

이번 달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서울배움터 축제가 무기한 연기됐다. 축제 진행의 주최를 맡은 총학생회 측은 “축제를 하기 위해 선 학교 측으로부터 축제 교비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그 비용이 나오지 않아 진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환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처장은 “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축제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혁(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2학기 축제 역시 협의된 사항인데 이에 대한 교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축제 준비가 모두 이뤄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교비 지급이 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축제 연기의 원인이 된 ‘교비’는 대개 학생자치 활동에 쓰이며 총학생회가 꾸려지고 난 후 총학생회 측과 학생복지처가 협의하여 사용내역을 결정한다. 그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학교 측에서 총학생회에 교비를 지급한다. 총학생회 측에 따르면 현재 1학기 교비는 △대동제 △정기학생총회 △봄 농촌봉사활동 사업 등의 사업에 쓰였고 2학기는 △여름 농촌봉사활동 △정기학생총회 △축제 등의 사업에 쓰기로 협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상환 학생복지처장은 “총학생회장과 협의를 할 때 2학기 축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축제 연기에 대해서 이상환 학생복지처장은 “학생들은 학교장들의 주점 금지 선언 때문에 학교에서 축제를 불허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총학생회 측에서 먼저 축제를 미루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상혁 총학생회장은 “먼저 축제를 연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학생처에 계속 교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축제 무대 대여비용을 내야 하는 날까지 교비를 받지 못해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바로잡습니다>

이번 달 8일(월)에 발행된 본지 953호의 대학보도 04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대강당’에서 이화여대 이상봉용 사용자 ‘200~250만원’을 ‘40~60만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지면안내

4 현재진행형. 본분교통폐합

6 늘어난 전임교원 수업, 그 허와 실

7 주점을 불허합니다

8 취업 제2탄, 학생에서 CEO로 변신하다



12 다문화를 품에 안다
우리학교 양민정 교수



빈 의자

언론의 생명은 진실 보도

▲이번 달 11일(목) 12시 경 MBC ‘정오뉴스’는 검찰이 국회의원 당선자 3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뉴스의 진행자가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30명 가운데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는 동안 화면에는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과 동명이인인 김근태 민주통합당 고문의원의 사진이 보도됐다. 김근태 민주통합당 고문의원은 지난 해 12월에 별세했다. MBC <정오뉴스>의 터무니없는 오보는 시청자에게 황당할까지 안겨줬다. 여론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대부라 불리는 고인을 두 번 죽인 셈이라며 들끓었다.

▲방송 후 MBC 뉴스 시청자 게시판에는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시청자들의 항의 글이 올라왔으며 인터넷에는 MBC <정오뉴스>의 오보를 캡처한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다. 심지어

‘방송사의 수준을 짐작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MBC는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서 해당 쪽지를 삭제했다. MBC는 오보가 나간 지 3시간 만에 ‘3시 경제뉴스’ 말미에서 앵커의 입을 빌려 오보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는 시청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한 처사였다.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공식적인 정정보도와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언론의 5대 기능에는 △정보전달 △여론형성 △의제설정 △환경감시 △오락제공이 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단연 정보전달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우선돼야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고 의제를 설정해 사회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언론매체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MBC노동조합이 ‘자유언론 정론직필’을 외치며 170일 동안 파업을 했던 이유 또한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함이었다.

▲언론사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MBC의 대형오보는 우리나라 3대 방송사라는 타이틀을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이미 떨어진 신뢰에 결정적 타격을 줬다. 그나마 남아있던 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누구도 신뢰가 떨어진 언론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언론사에게 오보는 추석과 개천절 사이에 낀 직장인의 평일보다도 치명적인 것이다.

▲이미 잃은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힘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 달 8일(월)에 발행된 953호 4면 기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대강당’의 오보를 바로잡기 위해 23일(화)에 발행된 954호 1면에 정정 보도를 실었다.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본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우보연 부장

학내 브리핑

민주주의의 꽃, 토론대회 참가자 모집

이번 달 31일(수)까지 우리학교 인문대학의 토론대회운영위원회에서 '제5회 종장 배 토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토론은 사회·문화적으로 이슈가 됐던 주제를 선정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2~3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32개의 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우리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음 달 5일(월)부터 26일(월)까지 예선과 본선이 각 배움터에서 진행된 후 30일(금)에는 글로벌캠퍼스에서 결승전이 열린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승 1팀 △준우승 1팀 △베스트스피치 1명에게는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지원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 배움터 도서관에서 열린 시상, 가을 분위기 물씬

지난 달 27일(목) 서울배움터와 글로벌캠퍼스에서 각각 정독상 시상식과 다독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서울배움터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이영훈(일본·일본 03군)을 비롯해 총 7명의 학생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독상은 응모된 도서 감상문을 심사해 선정된 우수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우수상(상금 30만원) 1명 △우수상(상금 20만원) 2명 △장려상(상금 10만원) 4명의 학생에게 주어진다.

한편 글로벌캠퍼스에서는 다독자로 선정된 8명의 학생이 상을 받았다. 대출권수가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다독상의 부상으로 1위에게 20만원, 나머지 7명 학생들에게 각각 10만원의 상금이 마련됐다. 또한 모든 수상자는 수상 후 1년간 대출 가능 권수에 5권이 더 추가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혜연(동남·스페인어 09)이 총 125권을 읽어 1위를 차지했다.

만평

김경보 3



무산 넘어 무산, 양 배움터 정기총회

양 배움터 노천극장의 풍경은 비슷했다. 학생들로 가득 채워진 곳은 중앙좌석뿐. 양 옆으로 갈수록 빈자리가 많았다.

지난 달 25일(화) 글로벌캠퍼스 하반기 정기총회(이하 정총)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정총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의 10%(803명)가 참석해야 하지만 이번 정총의 총 참석인원은 556명뿐이었다.

이날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주요안건인 △신분관 착공 계획 보고 △본·분교 통합 △하반기 계획 보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기타 논의로 학내 휴연에 대해 학생들 간의 의견을 나눴다. 이현성(동남·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법적으로 금연시설"이라며 앞으로 교내 휴연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총에 참석한 강수정(동유럽·루마니아 10)은 "오늘 정기총회는 대자보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가



▲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서울배움터 정기총회

능한 내용"이라며 "대부분의 사안이 예정으로만 끝나 정확한 실행 시기를 알 수 없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이현성 총학생회장은 "정기총회가 무산이 돼 아쉽지만 학생회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학생들에게 피해 없도록 예정된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26일(수) '응답하라 박철

정총'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서울배움터 정기총회 역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참여인원은 정족수 801명에 미달되는 541명이었다. 먼저 총학생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결산안 심의에서 2학기 자치회비의 남은 금액을 과학생회에 배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13년 있을 총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 보장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총학생회는 2002년 개최된 '총장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 학생이 참여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총장선거에 학생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후 정총은 우리학교의 자곡동토지 매매로 생긴 수익 720억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결의안을 더하며 끝을 맺었다.

이담휘(사회·정의 11)군은 "정기총회가 성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주제였지만 별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성희(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정족수는 미달됐지만 참석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총회 참여 학생 수는 우리가 얼마나 학교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학교에 알려주는 척도"라며 "학교는 정기총회의 성사여부에 따라 학생들을 무시하지도 무시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운·신민지 기자
86healing@hufs.ac.kr

이덕선 동문의 후배 사랑, 장학금 수여식 열려

힘든 환경으로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섯 학생들의 어깨가 한층 가벼워졌다. 이번 달 8일(월) 서울배움터 본관 2층 이덕선 회의실에서 '이덕선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덕선 미주 동문연합회 이사장 내외 △정경원 대외부총장 △윤경욱 발전협력팀장 △안경호 학생감동팀장 등 여러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덕선 회장은 축사에서 "학생들이 공동체정신과 봉사정신을 키우고 가정에서 학교로, 더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 수혜학생은 △민경신(사회·행정 05) △서준우(동유럽·폴란드어 06) △조아란(동양어·태국어 09) △방은미(어문·인도어 09) △조현정(사법·독고 11)으로 총 5명이다. 특히 이번 수여식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덕선 회장이 직접 한국에 와 장학생들을 만나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장학

생 대표 민경신군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는데 장학금 덕분에 취업을 위한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열심히 경험을 쌓고 더 많이 노력해 좋은 결과로 선배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덕선 회장은 1958년 우리학교 독일어과에 입학한 뒤 1966년 미국으로 이주해 'Allied Technology Group'을 설립하고 현재 이곳의 CEO로 재직 중이다. 또한 미주 동문회 활동에도 힘써 2004년 미주총동문화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 미주동문연합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과 더불어 2000년부터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기 시작해 학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홍진아 기자 86jinhah@hufs.ac.kr

두 계단 경쟁,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14위

이번 달 8일(월)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종합순위 14위에 올라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국제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 102곳을 대상으로 △교수연구(100점) △교육여건(90점) △평판·사회진출도(60점) △국제화(50점) 4개 부문 점수를 합산한 총 3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이 4개 부문은 각각 10개 내외의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그중 교수연구 부문의 경우 영향력 높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번 교수연구 지표 산출방식은 과거와 달리 계열별 특성이 반영됐다. 연구자와 논문 실적을 연구자의 계열에 따라 산출한 뒤 전체 대학 평균값과 비교해 점수화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우리학교는 △교수연구(58.28점) △교육여건(41.17점) △평판·사회진출도(38.51점) △국제화(42.04점) 총 180점을 얻어 종합평가 14위를 기록했다. 국제화 부문의 세부지표 중 영어강좌 비율에서는 1위, 외국인 전임교수 비율 및 해외교과 교환학생 비율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또한 평판·사회진출도 부문의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지표'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김대성 서울배움터 교무처장은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임에도 작년보다 순위가 상승한 것은 학교에서 총력을 기울인 까닭"이라며 "앞으로 교수들의 연구여건 개선, 우수한 외국인 교수 초빙 등을 통해 학교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2013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요강

1. 전형 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인터넷 작성	2012. 10. 22(월) 14:00 ~ 10. 26(금) 22:00	www.uwayapply.com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해당일 24시간 작성 가능
서류 제출	2012. 10. 22(월) 14:00 ~ 10. 26(금) 22:00	대학원교학처 사무2팀 교육대학원 교학과 (대학원 건물 111호)	우편 제출의 경우 10. 26(금)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면접 전형	2012. 11. 10(토)	대학원건물 고사장	전공별 면접시간은 11.9(금)14:00 교육대학원홈페이지 입시뉴스에 공지예정
합격자 발표	2012. 11. 29(목) 14:00 예정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gse.hufs.ac.kr	
합격자 등록	2012. 12. 3(월)~12. 7(금) 예정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은행업무시간 내 인터넷뱅킹, 폰뱅킹 가능

* 제출서류접수시간 : 교학과 근무시간 14:00~22:00 (토요일, 일요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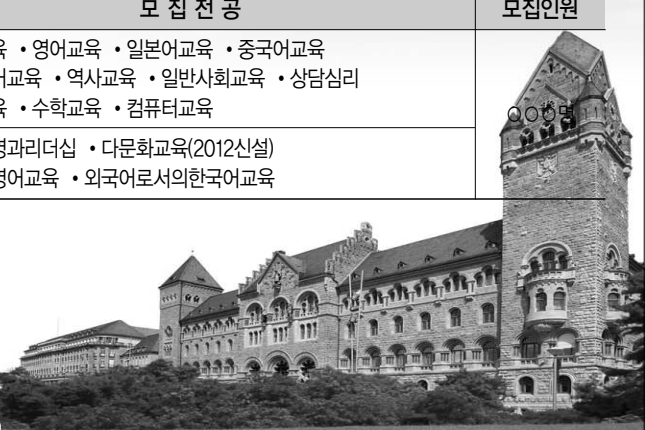
* 지원자 전원은 면접전형에 응시하여야 함

제출서류 보낼 곳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교학처 사무2팀 교육대학원
--------------	--

2.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 과정	구분	모집 전공	모집인원
교육학석사	교원양성 (11개전공)	· 국어교육 · 영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스페인어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상담심리 · 유아교육 · 수학교육 · 컴퓨터교육	100명
	재교육 (4개전공)	· 교육경영관리다심 · 다문화교육(2012신설) · 어린이영양교육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교육대학원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를 한 곳에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세계민속문화축전 열려



▲ 아프리카학부 학회 트윈보가 남아공 월드컵의 주제가인 waka waka에 맞춰 아프리카의 전통춤을 힘차게 선보이고 있다.

이번 달 (6일)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제22회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이 열렸다. 세민전은 1971년 창설된 후, 매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각 학과에서 준비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선보이는 자리다.

본 행사에는 총 18개 팀, 2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국의 문화를 알리는 전통공연을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스페인통번역학과 플라멩코 △아프리카학부 트윈보 △헝가리어과 차르다쉬 등 다양한 학회가 참여했다. 많은 관중의 박수 세례를 받은 학회 뮤즈의 정상준통번역·영어 12학회장은 "마이크가 부족하고 음향이 미비해 아쉽지만 21명의 우리 학회원들이 밤을 새우며 연습한 만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쳐 기

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태국어 민속춤회 '테짜오잉' 김기윤(통번역·태국어 12)은 "공연 도중에 실수를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공연에 집중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공연이 나에게 큰 경험이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행사가 진행되기 전 각 과 학생들은 △헝가리 △인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세계 10개국의 음식, 전통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문화체험의 거리 부스를 마련했다. 아랍문화 체험부스에서 아랍어 페이스페인팅에 참여한 김민희(충남서산시, 36)씨는 "꽃꽃축제를 관람하러 왔다가 우연히 세계문화체험부스를 발견했다"며 "정말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을 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시민 외에도 이현환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이상엽 학생복지처장과 권순환 총동문회장 등 여러 내빈들이 참석해 세민전 행사를 축하했다. 이현환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은 "글로벌 마인드로 모두가 친구가 돼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맞출 수 있는 세민전은 아주 뜻 깊은 행사"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세민전을 기획한 이상호(어문·인도어 10)위원장 "우리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불꽃축제를 보러오신 시민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 세민전과 같이 이후에 열릴 우리학교의 축제에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준서 기자 86jspark@hufs.ac.kr

잡(job)을 잡을 수 있는 콘서트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앞 잡콘서트 열려

기업들의 하반기 공개채용에 맞춰 지난 달 26일(수) 글로벌캠퍼스 경력개발센터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잡 콘서트(Job Concert)가 열렸다.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이번 잡콘서트에는 △사무계열 △금융계열 △전자계열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 △아시아나항공 △KB국민카드 △태평양물산 등 13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모든 학생이 전공이나 계열에 상관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날 상담부스에는 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인사인해를 이뤘다. 취업 준비생들은 인사담당자에게 취업전략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 내내 인사담당자들의 열정과 취업 준비생들의 높은 관심이 돋보였다.

구명임 아시아나 항공 인사담당자는 "그동안 기업 인재상과 채용 기준을 모르고 무작정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학교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고 학생들 또한 적합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취업정보가 부족한 잡콘서트에 참여한 최태원(통번역·영어 07)군은 "이번 기회로 평소 관심 있었던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일대



▲ "나만의 취업전략을 구성하는 중이에요" 두산인프라 기업 부스에서 두 학생이 인사담당자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일 대면을 하고 취업전략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잡콘서트는 채용 상담 이외에도 현장에서 즉석 취업 컨설팅 및 자소서 클리닉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취업타로 등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취업타로 행사에 참여한 이석연(동유럽·폴란드어 08)군은 "나만의 취업운을 점칠 수 있는 취업타로가 재밌었다"며 웃음 지었다.

박준서 기자 86jspark@hufs.ac.kr

어느 동아리가 제일 잘나가?

제 2회 동아리박람회 많은 학생들 참가해

이번 달 9일(화) 글로벌캠퍼스 공학관 207호에서 제 2회 동아리 어워즈가 열렸다. 동아리 어워즈는 지난 해부터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에서 개최하는 연례행사다. 이 행사에는 동아리부원과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이 구분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이날 △CCC △만리행 △비나리 △하얀공간 △마스터피스 △러너스하이 △서우회 △참동이사랑회 △외비가디 △슬랩업 총 열 개의 동아리가 2부에 걸쳐 각 동아리들의 활동을 △프리젠테이션 발표 △악기 연주 △작품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였다. 더불어 행사 중간에는 참석한 학생들을 위한 경품추첨이 있었다. 백민주(통번역·영어 09) 동아리연합회장은 "이번 행사가 각 동아리의 소개와 홍보의 장이 될 것"이라며 어워즈의 문을 열었다. 이어 이상엽 글로벌캠퍼스 학생처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재능을 찾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모든 동아리가 발표를 마치고 △청중평가단의 투표 40% △동연간부의 점수 30% △참가 동아리 회장단의 점수 30% 합산으로 순위가 결정됐다. 그 결과 CCC가 1등의 영광을 누렸다. 뒤이어 2등은 기타연주를 보인 외비가디가 차지했다. 청중에게 협력을 전수했던 슬랩업은 3등을 차지했다. 1등을



▲ 1등을 수상한 동아리 CCC의 양준모(어문·아프리카어 10, 오른쪽)회장이 한재준(공학·디지털전공 08, 왼쪽) 부동연장에게 상품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수상한 CCC의 동아리부원 이다정(어문·아프리카어 11)양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을 알리고 좀 더 친근하게 동아리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동아리의 발표를 지켜본 이일규 학생감동팀 대리는 "이번 행사는 여타 행사보다 색다르고 흥미로웠다"며 "동아리행사라 그런지 분위기가 가족 같고 정감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또한 백민주 동연장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뿌듯하다"며 "멋지게 발표를 준비한 각 동아리들과 참여해주신 일반 학생들에게도 아주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OPEN MYSTORY!

이야기 한다는 것 이야기 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기에 이제 삼성이 생각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

[삼성 임직원과 영상팀 촬영장면은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SAMSUNG BLOG & TWITTER & FACEBOOK
삼성블로그(www.samsungblogs.com) 트위터(twitter.com/samsungin) FACEBOOK(www.facebook.com/samsung)

“우리도 마음껏 실험하게 해주세요”

10년이 넘는 기자재...자연과학대의 아픈 속사정

“우리학교는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 상대적으로 이공계열이 소외되고 있다” 지난 달 25일(화)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 참석한 한 자연과학대(이하 자연대) 학생의 말이다. “실험수업에 쓰이는 실험기구가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노후화와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도 있어 실험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김덕현(자연·전자물리 09)군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실제로 자연대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학교의 구성원인 자연대 학이 겪고 있는 상황을 짚어보고 학교의 입장을 들어보자.

편집자주

◆ ‘실험실습기구만이 문제는 아니야’

실험실습이 많은 이공계 학과의 특성상 재학생들은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편이다. 하지만 이 등록금으로 언제나 필요한 것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외국의 지원을 받거나 낮은 이자의 외국 차관을 들여와 대학에 나눠 주는 방법으로 실험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전 세계가 경제 불황기로 접어들어 따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차관을 들여오던 미국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 차관을 끌어오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됐다. 때문에 실험기자재 지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지난 해 등록금 동결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실험실습비 예산이 15% 정도 삭감돼 고가의 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권예린(자연·생공 10)양은 “신입생 때는 낙후된 실험실 환경에 실망을 했다”며 “어떤 실험실은 들어가기 머뭇거리려 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실험실은 실험대가 노후화 돼 갈라져 있었다. 특히 자연대 실험실에 설치된 몇몇 ‘휴 후드’ 기기는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휴 후드는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 주는 기기로, 실험약품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해로운 가스를 학

생들이 마시는 것을 방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연대의 조교는 “이 실험실에 있는 실험대와 휴 후드 경우만 해도 최소 10년은 넘었을 것”이라며 “아마 학생들이 이 기기들을 보고 노후화 됐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후화된 자연대 실험기자재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새로 설치된 한 휴 후드의 경우, 새것에 가까운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해로운 공기가 바깥으로 미처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연구실로 들어오는 등 작동 오류가 있었다. 원인을 살펴본 결과 기계의 오작동이 아닌 실험기자재와 연결된 기본 인프라(배기관)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실이 지어질 때부터 있었던 펌프와 같은 기본 인프라는 지어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험 기기가 많아지자 늘어난 에너지를 견뎌 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좋은 기기를 새로 들여도 완전히 그 기능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외부지원은 불가피한 선택’

우리학교 이공계 교수들의 1인당 논문 편수는 1년 평균 55편으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이공계 교수들은 논문 및 연구제안서를 통해 연

2011년도 기준 연구비 수혜 실적

학과	전임교원수	교내		교외		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생명공학과	8	21	109,000	10	638,310	31	747,310
수학과	5	6	34,000	2	65,843	8	99,843
전자물리학과	7	15	57,200	6	395,320	21	452,520
통계학과	7	10	40,900	6	366,714	16	407,614
화학학과	7	42	184,400	12	1,062,482	54	1,246,882
환경학과	5	7	38,800	8	578,190	15	616,990

출처 : 김연현/연구지원팀

구주제의 기대성과를 인정받은 후 외부 연구비를 수주해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수주해 온 연구비로는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재료를 넉넉히 구매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조기성 자연대학장은 “사실상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대부분 이공계열 대학들을 살펴봐도 학교 자체의 예산만으로 원만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고가 장비는 어떻게 구매해왔을까. 지난 5년 동안 우리학교 자연과학대학은 지난 2007년 GPRC(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사업기관에 우리 학교의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된 바이오산업용 단백질 연구센터가 선정된 이래로 외부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구매한 자연과학대학의 고가 장비는 이를 활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험실을 모두 개선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앞에서 제시한 실험대와 휴 후드만 해도 한 대당 약 1000만원, 500만원이다. 때문에 실험실의 기기 하나만 교체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조기성 자연과학대학 학장은 “교수들이 외부에서 연구비를 원활히 수주할 수 있으려면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 연구보조를 위한 대학원생 지원을 늘려 훌륭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모두가 바라는 방향- ‘수준 높은 종합대학을 위하여’

권정득 예산조정팀 팀장은 “이공계 대학의 예산은 긴축재정과 실험비 등을 감안해 줄였으나 학사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 감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험실이 학생들에게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부분은 감안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학생들이 느끼는 열악한 실험 환경은 기기 노후화와 기기 수량 부족이 주요 이유였으나 실험기기 뿐만 아니라 기본 인프라 자체의 노후화에도 문제가 있었다. 위에서 살펴봐왔던 현재 자연과학대학 교수 및 학교 측도 모두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실험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학교 이공계 환경에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황다운(자연·화학 12)양은 “우리학교가 종합대학인 만큼 이공계도 더욱 발전시켜 한층 더 수준 높은 종합대학으로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했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우리학교 본·분교 통합 어디까지 왔나

우리학교는 지난해 6월부터 본·분교 통합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은 중복 학과의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본·분교 통합 승인이 매년 부결됐지만, 이번 달 2일(화)에 세 번째 통합안이 제출돼 8일(월)부터 심사가 시작됐다.

이번에 제출된 통합안에 따르면 서울 배움터의 경우 영어대학이 현재의 학과

제 운영에서 학부제로 바뀌게 된다.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국제경영학과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가 있는 경상대학은 국제경영학과와 경제학과가 국제금융학부로 통합이 되고 경영정보학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어문대학 또한 특성화사업으로 인해 내년부터 국제지역학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각 과들의 이

름이 ‘-어과’에서 ‘-학과’로 변경된다. 그리고 현재 동유럽대학의 소속인 노어과가 국제지역학대학 러시아학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현성(통번역·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의 말에 따르면 본·분교 통합안이 제출된 한 달 뒤 결과 발표가 난다. 이현성 총학생회장은 “현재 교과부

의 대학평가에 따르면 서울배움터의 취업률이 21위, 글로벌캠퍼스는 58위”라며 “본·분교 통합이 됐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다면, 우리학교는 대형 종합대학이 되고 취업률 순위는 12위로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중훈 서울배움터 전략기획팀장은 “만약 본·분교 통합이 되면 우리학교가 평가를 받을 때 이득이며 특별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상혁(시영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무조건적인 통합으로 규모만 키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

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과명이 변경되는 학과는 본·분교 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 커리큘럼과 학과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교과부의 본·분교 통합 승인을 받고 난 후에도 변경안을 조율할 수 있는 최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이 유예기간에도 이전의 학과명과 커리큘럼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학과명과 커리큘럼이 적용되는 것은 통합이 이루어진 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3학년도 전기 석사·박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3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특별전형	9.24(월)~9.28(금)	10.13(토) 10:00	10.25(목) 14:00	10.29(월)~11.2(금)
일반전형	11.5(월)~11.9(금)	11.24(토) 10:00	12.6(목) 14:00	12.10(월)~12.14(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모집요강”→“입학원서작성 바로가기”) 인터넷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한국외대 출신자, 성적우수자, 외국인 유학생)
-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 다. 대학원생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참조

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earTHome

세계의 축제,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달 6일(토)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우리학교 학생들과 시민이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을 즐겼다. 다양한 국가를 대표하는 춤과 노래를 선보인 학회와 동아리를 보니 실제 외국인들은 어떤 춤과 노래를 추며 축제를 즐기는지 궁금해진다. 우리학교의 외국인들은 모국에서 어떤 축제에 참여했을까? 지금부터 세계의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자. 편집자주



▲ 스페인, Victor Campubri Telo, 통번역대학 스페인 어문번역학과 외국인 조 교수

10월에 열리는 스페인의 유명한 축제는 무엇이 있나요?

10월 12일은 건국기념일로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을 기념해 큰 축제를 열지요. 이 날은 스페인에서는 'El día de la Hispanidad'로 알려져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El día de la Raza'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0월 12일은 육군의 날이기도 해서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군의 시가행진이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스페인의 왕과 왕비,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꼭 참석합니다.



우리나라의 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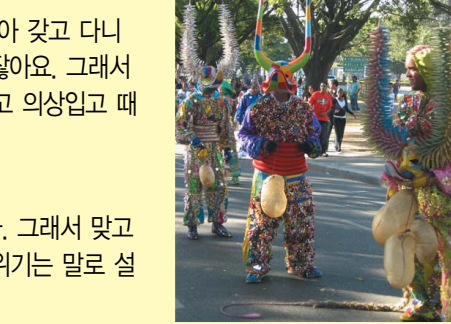
서울의 스페인 대사관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스페인 출신으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통 음식과 음료를 먹었는데 참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석가탄신일도 좋아합니다. 거리마다 달아놓은 아름다운 등불이 밤에 켜지는 것과 멋진 행렬이 매력적이거든요.



▲ 한국, 신진웅(경상·국제경영 12),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약 13년간 거주

도미니카공화국의 카니발 축제가 유명하다는데 가장 특색 있는 것이 뭔가요?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큰 도시에서 2월 내내 카니발 축제가 열리는데 '산티아고 카니발'과 '라 베가 카니발'이 유명해요. 특히 일요일에는 나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차단할 만큼 성대하게 열립니다. 축제는 아침 일찍 시작해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는데, 화려한 코스튬을 입고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며 다닙니다. 코스튬에는 작은 종들이 많이 달려서 소리가 나요. 사람들은 공처럼 생긴 것에 줄을 달아 갖고 다니는데 그것으로 아무나 때리기도 합니다. 가면을 쓰면 서로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종종 학교에서 싫어하는 애가 카니발에 간다고 하면 가면 쓰고 의상입고 때리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린다고요? 맞으면 진짜 아프겠어요. 좀 충격적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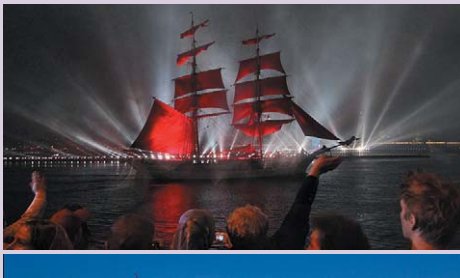
맞으면 정말 아프기는 해요. 하지만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은 축제를 정말 좋아하고 즐깁니다. 그래서 맞고 때리는 것도 축제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하는 편이죠. 그곳의 흥겨운 분위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가서 직접 느껴보는 걸 추천해요.



▲ 러시아, Alex Gulina 교환학생

한국에는 없는 러시아의 특별한 축제가 궁금해요.

6월에 St. Petersburg에서 'The Scarlet Sails festival'이라는 축제가 열려요. 이 축제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축제는 Neva강의 둑을 따라 열리는데, 희망을 상징하는 진홍색 돛을 단 꿈의 배가 이 강을 따라 전진합니다. 사람들은 둑에 모여 이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구경해요. 또한 이 축제는 불꽃놀이, 음악회 그리고 물 위에서 펼쳐지는 전투 재현이 큰 볼거리죠. 해적선을 포함한 열 척의 배가 물 위에서 전투를 벌여요. 이 축제가 끝나면 며칠 후 대학교 입학시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축제에 참가해서 느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요?

어두운 밤에 멋진 음악을 들으며 배를 기다렸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2시간의 기다림 끝에 어둠 속에서 진홍색 배가 서서히 선명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멋졌어요. 이 축제에 처음 참가했을 때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여서 제게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경보 ·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세계 브리핑

이탈리아, 마피아에 연루된 지방정부 해산시켜

이탈리아는 지방 마피아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부 도시 레지오 칼라브리아의 지방정부를 해산시켰다. 안나 마리아 칸셀리에리 내무장관은 이번 달 9일(화) 로마에서 레지오 칼라브리아의 시장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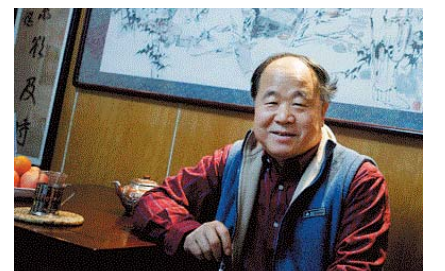


▲ 마피아에 연루된 이탈리아 남부 도시 레지오 칼라브리아

메트리오 마레나와 지방의회 의원 30명 전부를 해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로마에서 파견된 검사관측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칠리 마피아의 조직인 은드랑게타와 연루돼 있다는 것을 보고해 이뤄졌다. 이 도시는 다음 선거가 이뤄질 때까지 중앙정부가 임명한 세 명의 위원에 의해 18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 확정

스웨덴 한림원은 이번 달 11일(목)에 중국인 작가 모옌을 201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모옌은 중국의 가오미현 출신으로 '현실주의를 전설이나 역사, 동시대와 결합시키는' 작가로 유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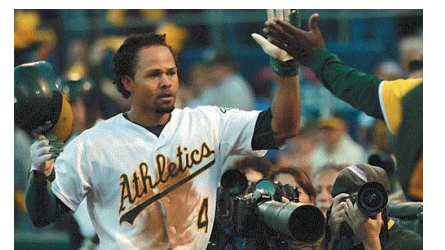


▲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모옌

다. 노벨상위원회 홈페이지의 수상자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문화혁명 당시 일을 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중퇴한 뒤 1976년 인민해방군에 입대해 문학과 문예창작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모옌은 △일본 식민지 시절 중국의 모습 △마적들의 문화 △지방 소시민의 힘든 삶을 다룬 작품 '붉은 수수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작품은 이미 많은 언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오클랜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격파

아메리카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연거푸 2패를 당했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이번 달 9일(화)에 뛰어난 투수력을 자랑하며 디트로이트를 2:0으로



▲ 승리를 자축하는 오클랜드 소속 선수

격파했다. 오클랜드는 올해 1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팀으로 평가 받았었다. 그들은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팀이었으며 기존의 낡은 구장을 대체할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구단 운영팀과 긴 갈등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날 저녁에 응원수건을 흔드는 팬들이 홈구장을 가득 채웠으며 4명의 투수가 연달아 11개의 삼진아웃을 잡아내며 승리를 장식했다.

각주

1)플레이오프 정규 리그를 끝낸 다음, 최종 우승 팀을 가리기 위해 별도로 치르는 경기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휴스토리 Hufstory

1화 | 2화 | 3화

권수정 기자

한국어

<알아가기>

학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슨 전공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등의 기본적인 질문들과 더불어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다는 공통점까지 발견한 그와 나는 뜨거운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다음 심리학 시간까지 같은 카페에서 두 번을 더 만났고 또 다시 뜨거운 커피의 김이 사라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프랑스어

On a commencé à se raconter après s'être déplacé on a commencé à se raconter après s'être déplacé au café devant l'école. 오 카페 드방 레꼴.

On n'était même pas conscient du café tiède pendant qu'on a continué de communiquer avec des questions simples comme, "Quel âge avez-vous?" etc. On a trouvé que nous aimons la musique tous les deux. Avant le cours psychologique prochain, on s'est retrouvé encore deux fois au même café. Et on s'est discuté jusqu'à le café a perdu sa chaleur.

"En quoi êtes-vous spécialisé?" "영 귀와 에 부 스페씨알리제?"

"Quel âge avez-vous?" etc. On a trouvé que nous aimons "겔라쥬 아베부?" 에세떼하. 오나 트후벵 꼬 누제몽

la musique tous les deux. Avant le cours psychologique prochain, on s'est retrouvé encore deux fois au même café. Et on s'est discuté jusqu'à le café a perdu sa chaleur.

프호생, 응 세 흐트후벵 앙꼬호 두 푸화 오

même café. Et on s'est discuté jusqu'à le café a perdu sa chaleur.

아 페호뒤 사 쇼뵈호.

Comme ça, on était en train de se reconnaître. 꿈의 싸, 오네떼 영 트항 드 쓰 흐꼬네트흐.



이란어

بعد از اینکه به کافی شاپ جلوی دانشگاه برویم، شروع صحبت کردیم.
바야드 아즈 인 케 베 커피셔프 졸로예 더네쉬거흐 베라범,
쇼루에 소호바트 카르담.

((رشته تان چه؟)) ((چند سالته؟)) و غیر با این نوع سوال، ابتدا کردیم که دوست داشتن موسیقی من با او مشترک است.
برای همین ما ادامه ی صحبت کردیم در صورتی که قهوه سرد می شود.
((레쉬테턴 치에?)) ((찬드 설레터네?)) 바 게이르 버 인 노예 소열, 페이더 카르담 케 두스트 더쉬타네 무시기 만 버 오 무쉬타 락크 아스트.
바리에 하민 메 에더메예 소호바트 카르담 다르 수 라티 케 가호베 사르트 미샤바드.

تازنگ روانشناسی بعد، در همین کافی شاپ ما 2 بار دیگر دوباره همدیگر را دیدیم و با اشتیاق صحبت کردیم.
터 장게 라벤네너씨예 바야드, 다르 하민 커피셔프 머 도 버레 디가르 도버레 함디가르 러 디담 바 버 에쉬티에그 소호바 트 카르담.

انجوری ما دانتیم با همدیگر آشنا می شدیم.
인주리 머 더쉬팀 버 함디가르 어쉬너 미쇼دم.

※이란어에서 (())는 한국어의 " "와 같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위해’

늘어난 전임교원 수업비율,

줄어든 학과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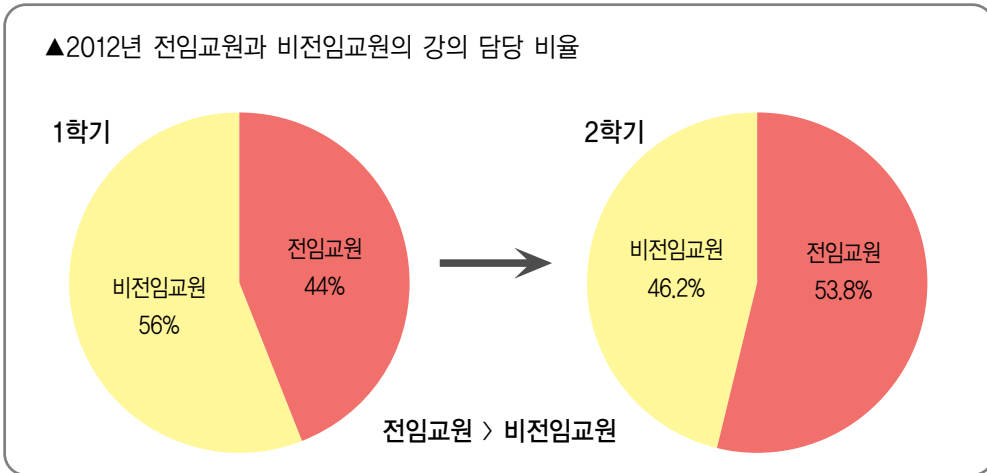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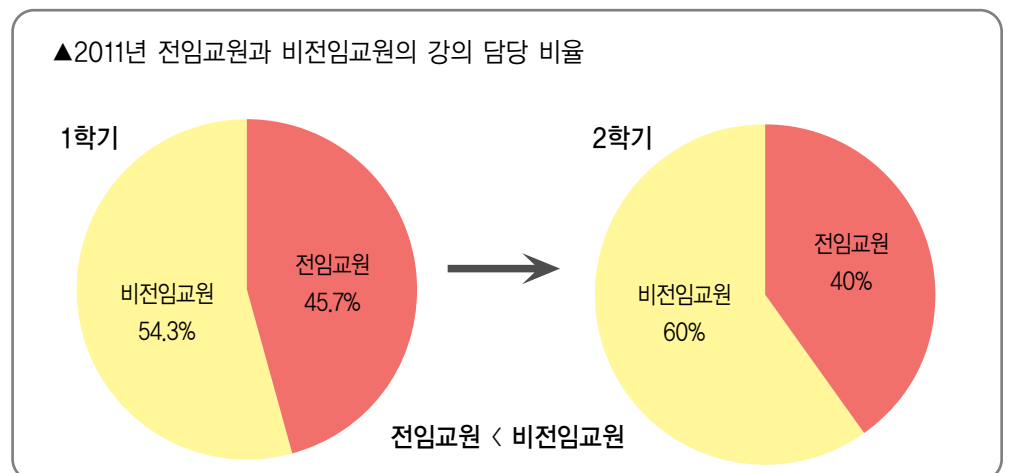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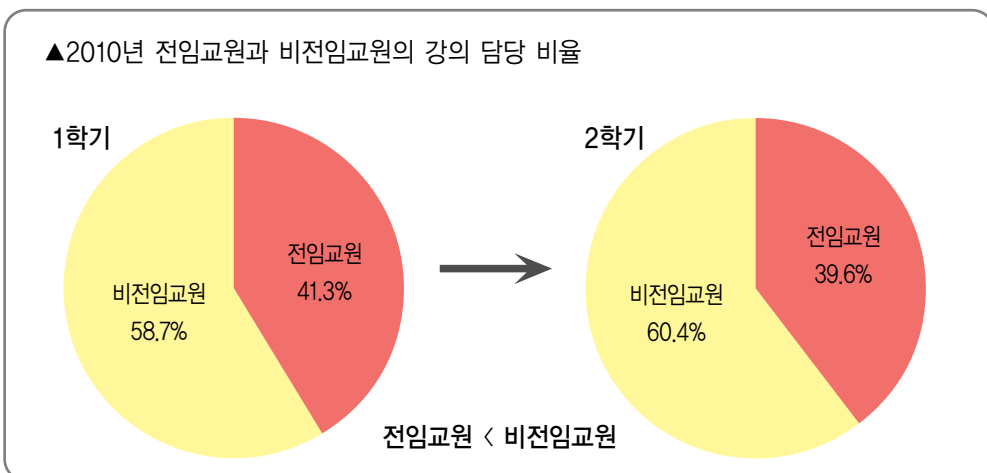
2010년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의 전체 강의 중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비율은 1학기 41.3%에서 2학기 39.6%로 줄었다. 2011년도 또한 전체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1학기 45.7%에서 2학기 40.2%이 되어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은 2년 연속 줄었다. 그런데 2012년의 전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1학기 44%에서 2학기 53.8%로 약 10%가 갑자기 늘어났다.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이 늘어나 언뜻 보면 전체 수업이 늘어난 것 같지만 의아하게도 학생들은 수업이 줄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전임교원 수업비율, 그 밑에 깔려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와 우리학교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전임교원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 전임교원들의 강의담당비율이 최소 50%를 충족시키는 것이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평가기준 중 하나이다.

※비전임교원이란? 전임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비전임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2010~2012년의 학기별 전임교원과 비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위 그래프에서 제시됐듯 2010년과 2011년은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면서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줄고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늘었다. 하지만 2012년의 경우, 전체 교원의 강의담당비율 중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늘었지만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의 경우는 40%대로 줄었다. 서울배움터의 총 개설학점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1학기는 2640학점이고 2학기가 2676학점으로 46학점 늘었다. 2011년의 경우도 1학기 2628학점에서 2학기 2665학점으로 37학점 늘었다. 하지만 2012년의 경우 반대로 1학기 5328학점에서 2학기 5060학점으로 268학점이 줄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뭘까?

◆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이 늘었는데 학생들은 불만이 있다?

전임교원의 수를 확충하는 방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비전임교원 담당 강의를 줄인 방법으로 진행된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50% 달성은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양유진(중국·중국 06) 중국어대 학생회장은 “1학기 10개 반이었던 전공필수과목이 2학기에는 7개로 줄었다”며 “전공필수과목을 들어야하는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해 결국 1개 반을 증설했지만 그나마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표면적으로만 높아졌지만 비전임교원의 수업을 줄여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이고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학교는 강의 수를 줄여 인증기준을 충족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전임교원을 충원해 수업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일본어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이상현(일본·일본 05) 일본어대 학생회장은 “평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업을 축소할 조치는 대학기관인증평가의 시기가 예견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비전임교원의 수업담당을 줄이고 학과일과 연구, 수업을 병행해야하는 전임교원의 수업수를 무리하게 늘리느라 학과 측에서도 큰 진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특히 회화수업의 경우 학과 측에서도 소수인원이 수강하는 환경을 유지하고 받을

증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회화 수업수가 줄었다”며 “정기총회에서 열악해진 수업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임교원의 확충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어문계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봉현(사범·영교 09) 사범대 학생회장은 “학과장실에서 수업시수변경에 대한 사전설명도 충분하지 못했다”며 “토론과 발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은 수강인원이 요구되는 교직과목 또한 수강인원이 많아지면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전임교원의 수업비율은 왜 50%가 돼야 하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산하 평가기구인 대학평가원은 대교협 법 제18조와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 5년마다 대학의 수업수준을 점검해 사회에 공표한다. 이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여부가 달라지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대학의 폐지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국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학교는 2013년도까지 평가에서 통과해야하며 이 결과는 우리학교의 재정확충 및 우리학교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학생의 유치에도 공신력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 조정 방법은?

우리학교는 2010년과 2011년에는 대학기관

인증평가의 심사분야 중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을 50%로 맞춰야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학과 자체적으로 전임교원의 수업담당비율을 높이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하게 했다. 2012년 2학기인 현재 전임교원의 수업담당비율은 50%에 근접한 수치에 도달했다. 이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이 각 과별로 소폭상승하고 대부분의 비전임교원비율은 적게는 1학기과 같거나 1학기의 반절 수준으로 줄어든 곳도 있다. 대학정보공시자료에 따르면 위의 그래프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이 낮아지고 총 개설학점이 1학기보다 268학점이 줄어든 상황이다.

◆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의 계획의 합의점은?

최효영 평가감사팀장은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을 50%로 높이려면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며 “현재도 충분히 전임교원 확보율은 높은 편인데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임교원을 확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문제 등으로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말하기 수업이 통합되거나 폐지되어 곳곳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전임교원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

에 대해 최 팀장은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며 어문계열의 특성상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수 있지만 변경된 커리큘럼은 학과 측에서 어찌든 방안하게 운영되었던 분반을 효율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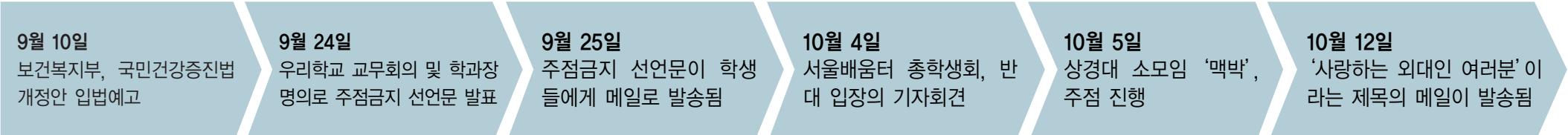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상혁(서양어·프랑스어 09)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으로부터 2학기에 수업시수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건 6월에 처음 접했다”며 “몇몇 단대로부터 수업의 개수가 줄거나 한 반의 정원이 늘어 오히려 조정 이전보다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학평가의 기준은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이 높을수록 질 좋은 수준의 수업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설정된 것”이라며 “하지만 대학평가의 기준을 맞추려 역으로 학생들이 받는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줄이고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높이면서도 전체적인 수업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가 됐으니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위해 전임교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학기관인증이 마무리되는 내내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주점을 불허합니다

우리학교가 주점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주점설치 금지 선언에 뒤이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의 반발로 이러한 상황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됐다. 학교는 학생에게 책임을 물었고, 이에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 자치권을 탄압하려는 시도라며 반박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회는 이렇듯 서로 다른 근거와 주장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교와 학생회의 입장과 주장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내 음주문화 개선 선언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무위원 및 학과장 일동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주류 및 무분별한 음주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한 시발점으로서의 캠퍼스 내 음주관행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캠퍼스 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점 설치를 불허한다.
1. 학교 구성원의 잘못된 음주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 캠퍼스 내 각종 행사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연구와 학습 등 면학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

2012. 9. 24.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무위원 및 학과장 일동

논란의 중심, 주점금지선언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의해 입법예고 상태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교내에 주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학생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술을 마시는 이색 시위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청년 대선캠프 언론홍보담당 하윤정(당양어·아랍어 06양)은 "물론 자제력을 잃고 술을 마시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강제해 해결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다"며 "성인인 대학생들이 어린 아이 취급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대학교 교내 음주조치가 공론화 되는 가운데 우리학교에서는 지난 달 24일(월) '음주문화 개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비롯한 여러 주요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우리학교의 선언문의 내용 및 서울배움터 학생회의 반발을 비롯한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음주문화 개선" VS "자치권 탄압"

우리학교에서는 지난 달 24일(월)에 교무회의 및 학과장 명의로 '음주문화 개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주점설치 불허 △학생들의 음주 관행 개선 노력 △캠퍼스 내 각종 활동으로 인

해 발생하는 소음 예방을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 날인 25일(화)에는 전체 학생에게 선언문을 보내 이를 알렸다. 이에 반발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에서는 비상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주점설치 불허를 학생 자치권 탄압 시도로 규정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번 달 4일(목) 기자회견을 가지고 학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배움터 학생회에서는 △오전 8시 △정오 △오후 5시 세 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점금지조치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한편, 인문관과 사회과학관에서는 선언문 철화와 자치권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8000외대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번 달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배움터 학생회의 반대 활동이 계속되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번 달 12일(금) 학생복지처장 명의로 '사랑하는 외대인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며 다시 한 번 주점금지조치가 불가피 했던 것임을 강조했다.

학교 측의 선언으로 인해 일본어대를 비롯한 많은 과와 동아리에서 계획해 오던 주점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일정을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5일(금)에는 학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경대 소모임 '맥박'에서 주점을 진행했다. 당시 학교 관계자는 전기를 끊고 철거를 요구하는 등 주점 설치를 막으려 했으나 주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인옥(상경·경제 06 상경대 학생회장)은 "학교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기존에 계획한 대로 '맥박'의 주점을 진행했다"고 말하며 "이번 주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은 학생 자치권을 지키겠다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전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학생징계규정 △제 6조 △제 12조 △제 13조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소모임 회장을 회부하겠다는 것을 언론에 알리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번 달 15일(월)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학생복지처장 △상경대 학생회장 △소모임 회장이 면담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변경돼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엇갈리는 반응, 방법이 먼저? 결과가 먼저?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결정과 학생회의 반응에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봉춘(사회·정의 12군)은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와 학교와 소통하지 않는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한한나(당양어·아랍어 12양)도 "단순히 주점을 금지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면학 분위기가 갑자기 조성되거나 음주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회의적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승재(글경·경영 12군)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주점이 자칫 학교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호준(영어·영어 08군)도 "지나친 주점 행태로 기숙사 사생을 포함해 고시반 학생 등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

며 학교의 결정을 지지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생활정보 포털사이트 '홈스라이프'에서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양어대 학생회장장과 사범대 학생회장 등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들이 주점 문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학교가 학생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문제 이전에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주점문제와 학생 자치문제를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치다" 등 학생회와 반대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학교의 주점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학생이 주를 이뤘다.

좁혀질 듯 좁아지지 않는 입장차이

학교에서는 선언의 내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배움터 이상환 학생복지처장은 "주점에 대한 불만은 기숙사 사생을 비롯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해 계속 제기되던 문제였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점 설치로 인한 소음문제 등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총학생회에 수차례 요청한 바"있으나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선언문이 총학생회와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반면 서울배움터 학생회에서는 주점 금지 조치가 학생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위정섭(서양어·이탈리아어 10 서양어대 학생회장)은 대자보를 통해 "교무회의에서 선언 내용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유진(중국·중국 06 중국어대 학생회장)은 "학교가 등록금 문제나 전일교수 확충 문제 등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학생 자치활동인 주점을 문제 삼아 학생들의 활동을 제약하려 한다"고 대자보를 통해 밝혔다. 정상혁(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학교에서 지적한 주점의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으로 자체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며 "이번 선언은 학교의 '일방적인 압포'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는 한편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해 학교의 행정 처리과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시에 "12일(금)에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게 학교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개선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지난 달 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상태로 유지되며 다음 해 4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의 개정안. 이 법안의 제 34조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대학교 캠퍼스 내 주류 판매행위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단 △연회 △예식 △숙박 등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 이번 달 15일(월), 주점금지 철화를 요구하기 위해 나무계단에 모인 학생들.

hamlet
2012.10.07 23:42:04

'수시'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외대에 잔류 오기 하루 전 날 주점이 무려 4개가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제대로 뒤통리가 되어있지 않아 쓰레기와 오바이트의 잔해들이 외부인을 반겨왔습니다. 학교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주점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책임감과 기획력을 기르고 학우들간 친목을 다진다.] 라는게 주최측의 입장인데, 매년 친목 다지기만 실시되는거 같아 씁쓸하더군요. 누가 왔다갔는지 모를정도로 깨끗하게 치워져있는걸 거의 못봤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자유,권리만 외칠 줄 알지 그에 수반하는 책임감은 거의 생각도 안하는거 같습니다. 그러고선 예비범죄자 취급이니 뭐니.....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 것도 국민들 전부 예비범죄자 취급하는거 같아 생각하네요.

이 댓글을... 댓글

한학생
2012.10.08 09:2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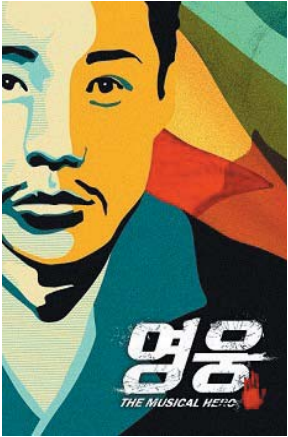
지식의 보고라는 대학에서 학습권도 아니고 음주권을 가지고 투쟁한다니... 외부의 시선에도 분명 이상하게 보일겁니다. 우리의 본분이 뭐지 무엇이 더 우선하는건지 생각해보면 더 좋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댓글을... 댓글

▲ 우리학교 생활정보 포털사이트 '홈스라이프'의 붉은광장 게시판에서 주점 금지에 찬성하는 학생들이 그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극과극 기자 고정칼럼 문나윤 기자

당신 속 영웅, 깨어있나요



▲ 뮤지컬 <영웅>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다. 이틀이면 타지에서 한국인을 만났을 때의 반가움, 국가대항전에서 한국이 이겼을 때의 짜릿함 등이다. 이번 달 4월(목) 열렸던 가수 사이의 콘서트 또한 비슷한 사례다. 이 콘서트는 '강남 스타일'이란 노래를 통해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있는 싸이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만든 자리였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8만 명의 관중과 국제가수 사이는 서로 교감하며 축제를 즐겼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몇 만 명이 한곳에 모여 한마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이제 왜 내 나라, 내 조국이 소중한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만을 생각한 '영웅'들을 통해 알아보자. 뮤지컬 <영웅>은 인종근 의사와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다. 우리의 팔과 땅을 뺏긴 일제강점기. 누군가는 시대 속에 묻혀가거나 일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자신을 버리고 나라를 지키려한 영웅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영웅들이 '그날을 기약하며' 부르는 노래에 오늘을 잇도록 만들어준 그들의 열정이 담겨있다.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내일과 두려운 미래. 하지만 포기 할 수는 없어. 그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어깨 감싸며 말하네. 힘을 내자고 사랑 하는 조국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물려받은 이 땅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일까. 선조들이 매일매일 꿈꿔왔을 오늘을 물려받은 당신. 그대의 내면에 있는 영웅을 깨워 나라를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 싸이의 공연 뒤 8만 명이 다녀간 자리가 끝난 화두에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연이 끝난 뒤 수거된 쓰레기는 18톤에 달했다. 일부 시민들은 주변에 널린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치우기도 했지만 서울시는 혼잡한 교통질서 외에도 쓰레기라도 몸살을 앓았다. 우리는 싸이가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렸기에 그의 공연에 열광했다. 그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던 국민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대한민국이기에 자랑스러웠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비단 공연이 진행된 2시간짜리였을까.

◆ “BE A BETTER MAN” 카리스마 넘치는 준스버거 CEO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앞에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들과는 다른 특별한 매력을 가진 수제 햄버거 전문점 '준스버거'가 있다. 이곳의 사장님은 우리학교 양준환(상경·경영 05)이다. 05학번 휴학생이지만 그가 풍기는 사장님 카리스마는 강렬하다.

“제 꿈이 원래 외식업에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꿈을 위해 경영학과



▲ 준스버거 사장 양준환군이 손님들에게 맛있는 버거를 서빙하고 있다.

에 입학한 후 대학생 자기경영 연합 커뮤니티의 스터디 소모임인 '대학생 외식경영 문화연구회'에서 팀장을 맡으며 경영실무에 대해 배워나갔다. 그는 “외식경영 문화연구회에서 팀을 이뤄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를 찾아가 상권분석, 소비자분석 등을 통해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렸다”며 경험담을 풀어냈다. 그렇게 꿈을 안고 달리다 보니 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 “졸업 후 외식업을 창업하느냐, 지금당장 해보느냐”

그는 오래지 않아 결정을 내렸다. 3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뒤 작년 4월에 준스버거를 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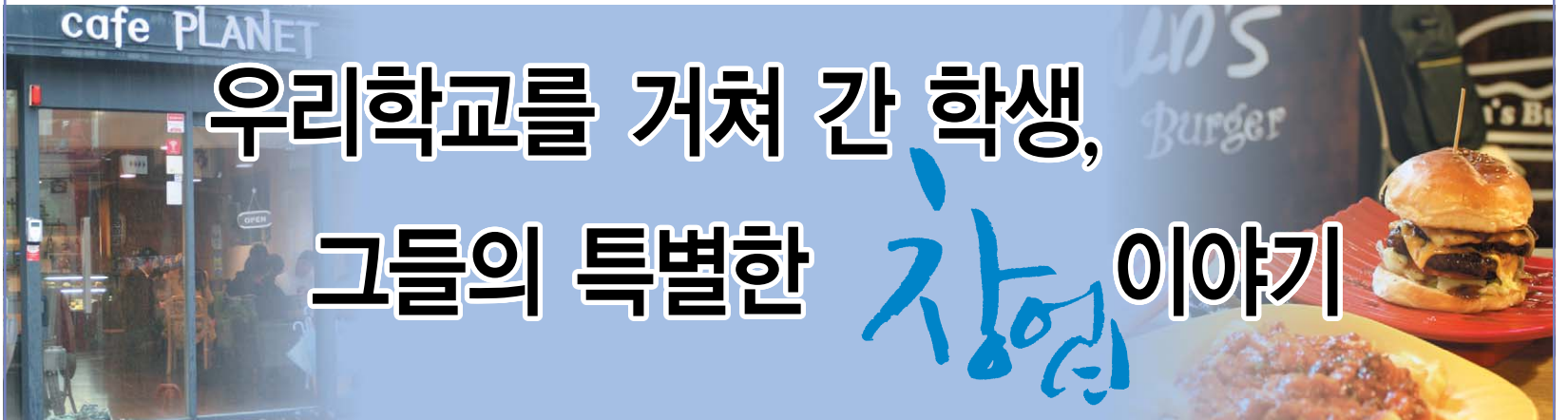
그는 “첫 도전에서부터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자본으로 시작하기에 리스크도 낮을 것”이라며 도전정신을 드러냈다. 그런데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을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돈을 은행이자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그는 이를 이용했다. 그의 부모님은 “왜 좋은 학교를 가놓고 장사를 하려 하느냐”며 반대했지만, 그는 두 달 동안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4시간동안 두 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끝에 부모님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는 부모님의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은 채 원대한 출발을 시작했다.

그렇게 ‘진짜’ 경영을 시작하며 시행착오도 많았고 심적인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는 꼼꼼한 매출플랜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미래 계획은 더욱 원대하다. “졸업 후 ‘준스’ 시리즈를 여러 개 만들 계획이에요. 상권을 찾아 술집, 양식집 등 5개 정도를 더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다양한 외식업을 운영하고 싶다. 준스버거는 그에게 ‘준스’ 시리즈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고객들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가게가 되자는 것이 제 경영철학입니다”. 그는 맛집 탐방을 좋아한다. 그는 “맛집탐방을 할 때면 그 맛집들의 장단점이 보이는데,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외식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하며 포부를 밝혔다. 벌써부터 미래의 ‘준스’ 시리즈가 기대된다.



◆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착한 카페플래닛 CEO

학교 주변에는 커피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정문 바로 앞 만해도 커피를 파는 곳은 셀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 준스버거 왼쪽 골목으로 더 들어가면 ‘카페플래닛’이 있다. 조금은 안쪽 골목에 위치해 있지만 저녁 7시, 커피플래닛은 손님들로 가득했다. 이곳의 사장님은 우리학교를 졸업한 정형우(동양·일어 03)씨다.

“보통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투자해 소매 자영업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적은 자금으로 하다 보니 실패율이 높아요. 보통 실패율이 80%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이는 그분들의 노년생계가 불안해지는 요인이 되죠.” 그의 창업 목표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개인의 창업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던 말인가.

“앞으로 3-4개의 소매업을 더 운영해 규모가 커지면 그동안의 창업 자료를 분석해 다른 사람

들과 공유할 겁니다. 앞서 말한 창업을 처음 하는 분들이나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운영 대행사’를 설립하고 싶어요” 그의 사업 최고 목표는 이익추구가 아닌 것이다. 현재 카페플래닛의 사장이 정형우씨임에도 그가 ‘월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운영을 대행하고,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나누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된 것은 “3학년 시절 조남신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님께 들었던 수업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는 조남신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창업을 결심한 후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살려 작년 4월, 카페플래닛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운영 대행사’ 방식의 경영은 졸업 후 2년간 근무한 STX회사동기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다. 상권과약도 문제없었다. 그는 “약 8년간의 대를 다니며 학교주변 외식사업들을 봐왔기에 상권과약이 용이했다”며 밝게 웃었다.



▲ 카페플래닛 사장 정형우군이 열심히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다.

약 1년간 운영한 가게, 그는 그의 수익목표를 달성했을까? 그는 생각했던 목표의 75%를 달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목표달성을 위해 요즘 그는 새로운 메뉴개발에 힘쓰고 있다. “사이드 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최근 개발한 쿠키의 인기가 많아 좋습니다” 그는 오늘도 더 나은 경영을 하기위해, 더 좋은 커피와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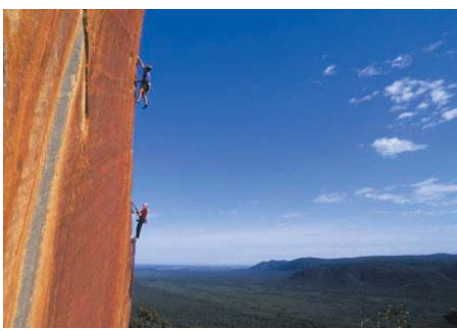
김계선 기자 86ksholic@hufs.ac.kr

운동장 기자 고정 칼럼 (길로)

김정원 기자

끝없는 추락 속,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가파른 암벽을 오르는 스포츠인 클라이밍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스포츠다. 깎아지른 듯이 높게 치솟은 절벽에 매달려 아래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위로는 발 디딜 곳도 잡을만한 것도 하나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부지기수다. 점점 더 몸을 아래로 당기는 중력에 대항해 유일하게 몸을 지탱하는 손끝과 발끝은 떨린다. 만약 힘을 잃고 떨어진다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함께 등반하는 동료뿐이다.



▲ 암벽에 오르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과 동료뿐이다.

클라이밍은 2인 1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함께 암벽을 오르지만 절대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한 명이 오르는 동안 다른 명은 동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멈춰있는 팀원을 확보하자 한다. 동료가 암벽을 오르는 동안 확보자는 지형을 이용해 몸을 지탱하는 간접적인 방식과 지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뒤 자신의 몸을 한 번 더 묶어 이를 확실히 하는 직접적인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방식이 이상적으로 인식된다. 물론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동료를 책임진다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다. 자신과 같은 줄에 연결된 등반자가 추락한다면 이 때 발생하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방식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데는 추락하는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우리 사회는 실패에 엄격하다. 실패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 둔감한 것은 물론이며 그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냉담하기만 하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나 의지를 미처 갖추지 못해 뒤처지는 것이 온전히 그들 자신이 못내서일까.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우리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다.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들이 동료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적어도 그들이 추락할 때 무관심한 방관자에서 벗어나 위험할 각오를 하고 확보자가 돼야 한다. 단순히 본인이 추락할 때를 대비해 미리 돕는다는 위기의식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다른 구성원을 동료로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동료애에 의해서.

맨눈으로 보는 그림 기자 고정 칼럼

임채운 기자

“맨눈으로 보는 그림”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코너입니다.

유리와 요한

그림을 펼친다. ‘돌아오지 않는 강’은 종이 양면에 모두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양면 중 오늘 펼친 건 이쪽이다. 한 남자는 집 안에 들어가 있고 한 여인은 집 밖에 서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고있지는 않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듯하다. 거친 질감의 그림 전체에는 꽃잎인지 눈인지 모를 하얀 조각들이 흩날리고 있다. 회색색이 주를 이루는 이 그림 속 세상은 흐리다.



▲ 이중섭, 돌아오지 않는 강

이 흐린 풍경을 보니 애잔한 사연의 한 남녀가 떠오른다. 여자의 이름은 유리, 남자의 이름은 요한이다. 두 남녀는 같은 집에 살지만 매일 슬픈 이별을 한다. 우리가 아침마다 집을 나설 때 요한은 세상이 떠나갈 듯 절규하며 운다. 유리는 눈을 질끈 감고 요한의 울음소리를 애써 못 들은 채 하며 집을 나선다. 이 애절한 두 남녀의 관계는 모자간이다. 요한은 다섯 살배기다.

엄마유리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 여성이다. 남편은 척박한 땅과 재해가 망쳐놓은 농사가 불려놓은 빛을 잔뜩 가지고 있다. 읍내 기관에서는 240만원을 열 번 내면 빛을 없애주겠다고 말한다. △모이장 △벌초 △학원버스 기사 △식당 일을 해가며 어찌어찌해 240만원을 아홉 번 냈지만, 마지막 한 번의

240만원이 도저히 마련되지 않는다. 마지막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 아홉 번이 모두 무효가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요한을 필리핀으로 보내고 일을 할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과 필리핀 사이 돌아오기 힘든 강은 자신이 건넌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요한을 집에 남겨 두고 일을 나가기로 한다. 아침마다 요한이 울지만 이것이 그래도 될 아픈 이별이기에 우리는 참는다. 그러나 자꾸 몸을 돌려 집을 돌아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다섯 살 아들이

엄마와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처럼 당연한 사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유리와 요한은 그 당연함을 누리려 하려 하려 하려 한다.

그림 속 여자와 남자는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듯하지만 서로를 만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림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만날 수 없는 억울함이 너무 커 표현을 그만뒀다면 것은 아닐까. 여자 쪽을 향한 남자의 손과 집 쪽을 향한 여인의 고개가 처연하다.

그림을 닫는다. 그림 속 남녀는 이제 안보이지만 이 땅에 현존하는 유리와 요한들의 현실은 그대로다. 누가 봐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 당연히 지켜지고 있는 세상이니 생각해 본다.

<학술 인터뷰>

언어의 고갱이, '문학' 꽃을 피우네다

신주철 교수가 말하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론



사진 김계선 기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 일부분이다. 이것을 시가 아닌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가 몸짓이었다가 갑자기 꽃이 되는 현상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 두 문장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두 문장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 깔린 한국적 정서와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맥락에 대한 배경지식이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다. 문학 작품이 가진 이러한 특징은 한국어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문학 작품이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한다. 우리학교 한국어교육과 신주철 교수(이하 신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어 교육 안에서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진단해보자.

신 교수는 먼저 '한국어 교육'은 국어 교육과는 전혀 다른 말을 밝혔다. 둘 다 한국어 습득이 목적이지만 학습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어(國語)교육의 대상자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지만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에게는 국어 교육이 외국어다. 한국어 교육 대상자에게는 국어 교육의 대상자가 이미 갖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성과 사상이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안에서의 문학교육은 국어 교육 안에서의 문학교육과 구분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교사도 국어 교육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커리큘럼을 습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고 신 교수는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국어 교육이 아닌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학 교육이 가지는 특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의 언어는 상대적으로 문학적 언어와 비문학적 언어로 나뉜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가 문학적 언어라면 "그는 내 남동생이다"는 상대적으로 비문학적 언어라 할 수 있다. 비문학적 언어는 "이 신발은 만원입니다" "한국외대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합니까?"와 같이 실용적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신 교수는 "만약 언어교육이 이렇게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의 아주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 생활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수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언어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수용해 서로 교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학은 어문법 중심의 언어교육 안에서는 찾

아보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맥락'을 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

'교육'이란 끊임없이 학습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모든 교육의 이상적 목표는 학습자가 한 발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하여 무언가를 얻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틀 안에서 수동적으로 어문법 지식만 얻어지게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는 교육이라도 최대한 새로운 것을 △보고 △상상하고 △깨우치고 △맛보게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안에서 문학작품은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이다. 신 교수는 표현한다. "문학 작품은 해당 언어권에서 생성된 표현의 '고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추를 한 장 한 장 뜯다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심이 있는데 그것이 배추의 고갱이다. 고갱이는 풀이나 나무의 줄기 한가운데에 있는 연한 심을 뜻함과 동시에 사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는 "문학작품에 있는 언어는 잘 다듬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깊은 맛을 알려줍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장마철엔 살 냄새가 짙어졌다. 여름은 평소 우리가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왔는지 환기시켜줬다. 지상에 숨이 붙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모든 체취가 물안개를 일으키며 유령처럼 깨어났다. 폭우 속, 사물들은 흐려졌고 그럴수록 기이한 생기를 띠었다.

김애란, 『물속 골리앗』중

신 교수는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한국문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 스스로가 먼저 문학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문학작품은 '나는 나고 너는너'라는 '서로 다름'을 확인시키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관용을 가르친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교사는 학생에게 작품을 해석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어진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을 매개로 자기 말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은 개입이 아니라 지적 활동에 대한 복돋움이 돼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한국어 교육 안에서의 문학교육은 학습자의 창발(창의적 발산)을 이끌어내 그를 '몸짓'에서 '꽃'으로 피워내는 과정인 것이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신주철 교수의 주요 논문·저서>

한국 현대시를 전공하였고 근래에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그 문학적 의미"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 논문 : • 초급 한국어 교실에서 노래가사 활용 방안 연구, 《우리말글》 제55집, 2012.8., 113-141쪽.
-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의 통합적 위계화 방안, 《한국어교육》 제21권 4호, 2011.3., 203-221쪽.
- 人權과 易地思之 觀에서 的 多文化教育, 《어문연구》 149호, 2011.3., 415-437쪽 외 다수.

- 저서 : •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9.
- 《1960년대 한국시문학의 탐구》 동인, 2008. 11. 외 저서와 공동저서 및 공동번역서, 그리고 한 권의 시집이 있다.

배깅! 한글, 입력되었습니다

컴퓨터에게 한글을 가르치다, 남지순 교수의 컴퓨터언어학



사진 김계선 기자

평범한 외국인 학생과 최고의 사양을 보유한 컴퓨터에게 한글을 똑같이 가르친다면 어느 쪽이 한국인과 대화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외국인 학생이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컴퓨터가 빠른 처리속도와 큰 기억 용량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컴퓨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언어를 활용해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은 적다. 따라서 △통역 △번역 △문맥 파악 등 언어를 활용하는 일은 인간의 전유물로 인식돼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번역이나 음성인식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일을 컴퓨터가 상당부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언어인지학과 남지순 교수(이하 남 교수)를 만나 컴퓨터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연구하는 '컴퓨터언어학'에 대해 살펴보자.

컴퓨터로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인지하도록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즉 컴퓨터가 한글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려면 한국어에 대한 어휘와 문법 등 여러 언어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남 교수는 "결국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컴퓨터에 넣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컴퓨터언어학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컴퓨터언어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보통 이 학문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나 기계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컴퓨터언어학은 기계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인간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한다. 인간은 정보가 주어지면 기존에 갖고 있던 배경지식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지만 기계는 주어진 정보 외의 다른 지식이 입력되지 않으면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다. 때문에 컴퓨터에는 더 꼼꼼하고 폭넓게 배경지식을 입력해야 한다. 남 교수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기계로 구현하는 것도 컴퓨터언어학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한글을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우선 기계가 한글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한글을 숫자의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그 후 기계가 읽어낼 수 있는 형식의 한글 어휘사전 및 문법체계가 필요하다. 주어진 정보를 통해 기계가 텍스트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기계에 입력하는 정보를 일정 방식으로 형식화하고 기계가 주어진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정 및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글은 다른 언어에 비해 형태론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동사나 형용사 등 어휘들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영어는 어휘 활용형태의 수가 기본형태의 2~3배 정도 되고, 영어보다 복잡한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활용형태가 기본형태의 10배에 달한다. 하지만 한글은 다른 언어와 달리 여러 개의 활용어미가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결합하는 활용어미의 종류와 수에 따라 활용형태가 기본형태의 1만 배 이상으로 셀 수 없이 늘어난다. 기계가 읽어낼 수 있는 한글 전자사전을 만들려면 이 수많은 활용형태를 단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일정 규칙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때문에 컴퓨터에 한글의 어휘와 문법체계를 입력하는 것은 다른 언어의 어휘 및 문법을 입력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다.

이에 남 교수는 "한국어와 같이 형태론적으로 복잡한 언어에는 다른 언어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자사전이 수많은 응용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계가 한글을 제대로 인식하고 출력할 수 있을 때 한글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가 언어를 활용해 인간이 원하는 정보를 도출하려면 위와 같은 한글의 언어체계 이외에도 추가로 다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번역작업을 하거나 외국어를 습득할 때는 한글과 함께 번역이나 습득을 원하는 다른 언어의 체계를 입력해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에서 제품 후기를 통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려 한다면 한글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빈도를 측정하는 통계 시스템도 같이 입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컴퓨터가 한글을 활용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기본적인 한글의 언어체계와 함께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에 따른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전유물이던 언어활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될까? 남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실제로 컴퓨터언어학의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계가 통·번역과 같은 언어활동을 100% 대체해 줄 수 있는지, 나아가 시를 쓰는 것과 같은 예술 활동도 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기계를 창조하고 통·번역활동 등을 프로그래밍해도 그것은 인간의 사고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 기계에게 언어활동을 전적으로 맡기는 건 무리라는 것이 남 교수의 생각이다. 그래서 남 교수는 "최근에는 기계에 전적으로 언어 활동을 맡기는 방법과 함께 인간과 기계가 서로 보완해 언어활동을 하는 절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하며 번역을 비롯한 언어활동에서 기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양재성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남지순 교수의 약력 및 주요 논문·저서>

프랑스 파리 제7대학 형식이론언어학 박사
프랑스 P.E.M.L.V 대학교 컴퓨터언어학 아빌리타시옹(Habilitation) 학위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학과 교수

논문 : • Une classification formelle des adjectifs psychologiques en coréen,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Vol. XVII-1, 1993.

• Classification syntaxiqu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en coréen,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Supplementa》 Vol. 21., 1996, pp.560.

• Lexique-grammaire des adjectifs coréens et analyse syntaxique automatique, 《Langages》 Vol. 31., NO.126., 1997, pp.105-123.

저서 : • 《한국어 형용사 어휘문법》 한국문화사, 2007. 그 외 한국어 전자사전 관련 논문 다수

로그아웃

권수정 기자

좀 더 정확한 눈이 되기 위해



사회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키우려면 한 가지의 신문보다 두 가지 신문을 비교하여 읽으라는 말이 있다. '신뢰감=언론'의 이표표를 달고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에도 각기 다른 입장과 시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맞네 틀렸네 등의 의견들로 더 분분히 나뉜다. 그건 아마도 개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걸여온 삶의 경험이 다르기에, 같은 사건에도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 가운데 신문은 수많은 시선의 교차점 중간에 서서 사회를 보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이번 호에는 우리학교의 전입교원비율에 대한 기획기사와 주점설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두 가지 기사 모두 우리학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학교와 학생 사이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전자의 기사에서 학교 측은 내년까지 통과해야 하는 대학기관인증제를 대비해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몇몇 학과의 수업을 줄이고 시간표를 조정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조정된 수업시간표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정방안에 대한 두 가지의 시선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기사에서 다른 주점 문제의 경우, 학교는 면학분위 조성, 음주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점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학교측의 방식은 주점이라는 일종의 자치활동을 없애는 것이고 음주관행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호의 경우처럼 다양한 시각이 부딪히는 문제를 보도할 때, 본지는 독자에게 부딪히는 시각들을 하나하나 확대해 보여주는 돌보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보기는 흐릿한 것을 선명히 해 사용자의 시야를 뚜렷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독자들과의 판단을 뚜렷하게 해주기 위해 취재를 거듭한다.

본지에게 특정 사안을 흑 또는 백으로 규정하지는 권리는 없다. 다만, 정론직필이라는 사명 아래 기자들은 정확한 문제의 원인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일을 동분서주한다. 그렇게 사건을 취재해 서로 부딪히는 입장들의 정확한 근거를 정리해 외대학보라는 지면 위에 균형을 맞춰 풀어놓는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본지의 역할은 마무리된다.

앞으로 본지는 이같이 사건에서 대립되는 입장들을 취재할 관련된 모든 입장을 좀 더 균형 있게 독자에게 제공 하는 돌보기가 되고자 한다.

다시 돌아본 나의 모교, 외대

동문의 소리

간고사 준비도 안 했다가 행사는 취소되고 시험도 망치곤 했다. 80년대의 자화상인 최루탄 냄새와 전경과의 대치 등 여러 가지 사건들과도 익숙한 세대다.

나의 모교와의 첫 대면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1983년 입학식 날, 나는 경희대 크라운관이 우리 학교 강당인 줄 알았다. 이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은 내게 큰 혼란을 줬고 별로 즐겁지도 않았다. 건물도 그렇거니와 대학 재단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그다지 큰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게다가 내가 공부했던 영어교육과 전공수업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해, 대학원을 다른 학교로 옮겨 갔고 그렇게 외대는 나와 떨어져 갔다. 남들이 알고 있는 외대는 허상일 뿐이라는 생각만 간직한 채.

그런데 왜 나는 학교로부터 계속 연락 받고 있을까? 그건 나와 함께 근무하는 외대 출신 선배들 때문이었다. 이들은 나와 달리 애교심이 출중한 사람들이라 졸업 후에도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직장 내 동문들 주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들의 애정 덕에 나의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외대와의 연을 놓지 못하고 있

는 것인지도. 그래서 나의 외대를 돌아보게 되었다. 좀 미안했다. 내가 외면한 사이 우리학교는 성큼성큼 성장했기에. 지난해 만났던 선배 교수님이 학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영어교육과 커리큘럼은 제자리를 훌륭히 찾아 바뀌어 있었다. 영어교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나 학과들 역시 내실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사이 오바마 대통령도 다녀가 학교에서는 그 홍보 효과를 단단히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 외대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보인다. 기쁜 일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선배 동문도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제부터 찾아 볼 생각이다. 그 첫발로 우선 나의 애정을 다시 외대로 돌리기로 했다. 내일은 나의 딸이 외대 수시 전형에 지원해 그 아이를 수험장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 이 아이는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외대에 원서를 냈을까. 이것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외대와 함께 하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인 것 같다. 나의 딸은 학교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 사라진 미네르바 동산의 추억은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 기대된다.

EBS 글로벌콘텐츠부 부장 정선경(사범·영교 83)



참 이상하다. 요즘 왜 이렇게 학교에서 연락이 자주 올까? 19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는 학교에 발걸음도 거의 안하고 살던 내게 왜? 지난 5월에는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는 선배님의 부탁에 까마득한 후배들을 만나 취업특강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학보사 기자라는 후배에게 본 원고를 청탁한다는 이메일도 받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외대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

나는 80년대 초중반 캠퍼스 생활을 한 세대로서 쌍쌍파티가 있는 학교 축제와 이념투쟁이 공존한 시대를 살았다. 대학교 1학년 때 쌍쌍파티를 위한 파트너를 누구로 할까 고민했던 시기도 있었고, 2학년 때는 세계민속문화축전 준비 때문에 미국 전통 포크댄스를 연습하며 중

일시 정지

소통을 향한 그들의 열정



저녁 6시. 학생들이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학생회 구성원들의 일은 이제 시작이다. 그들의 두 손 안에는 학내 문제를 알리는 자료들이 한가득이다. 바빠 정문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건네는 것은 그들의 작은 관심이라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자료가 학생들 모두의 손에 쥐어질 때까지 학생회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2학기 정기학생총회는 결국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하지만 학생회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소통을 위해 두 발로 뛰는 학생회 구성원들의 열기로 10월의 쌀쌀한 오후가 유난히 따뜻하다.

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지난호를 말하다 | 김동우(교육대학원·일반사회교육 08)

지난호를 말하다 | 박정욱(인문·사학 11)

Hufs! Don't Be Afraid of a Change, Do Challenge!

필자는 2008년도에 입학한 후, 회사 사장으로 잠시 휴학하였다가 이번 학기에 복학한 교육대학원생이다. 특히 복학 후로는 모교(母校)에 대한 애정이 점점 생기고 있다. 학보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그러하다. 예전에는 학보를 지나치기 일쑤였으나, 지금은 학보를 꼼꼼히 읽고 더 나아가 이렇게 글까지 기고하니 말이다.

이번 학기 개강한 후로 점점 더 학보가 내용면에서 알차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1년 첫 기사는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궁금증을 잘 다뤄줬다. 마치 '총학생회 총괄평가'가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말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기사 마지막에 잘 다뤄줘 독자가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2년 기사와 3년 기사에서는 우리 학교의 자랑스런 기사들을 접해선지 한층 더 자부심이 생겼다. 특히 세계대학 평가에서 300위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이 지표가 나오기까지의 일등공신은 바로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직원선생님들이다. 필자가 대학교직원으로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 수고한 수고에 비하면 기사로 다루어진 분량은

너무 적다는 아쉬움이 남게 된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코너는 바로 5면 국제면이었다. △일본 △터키 △중국 △미국 학생식당을 재학생 및 교수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며 재미있게 기사화한 것 같다. 또한 5면 세계브리핑 내용을 보면서 학보만 보아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세계브리핑을 우리학교 재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온 점을 살려, 학생들을 리포터로 하여 각자 모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들을 게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좀 더 생생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번 학보에서 필자에게 가장 감동 깊었던 피날레 기사는 바로 12면 외대 인터뷰였다. 특히 안우정 MBC 선배님의 보이지는 않았지만, 꼭심 있게 밀고 나갔던 '나 가수' 프로그램.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며 선배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게 되었다. 이런 선배님이 계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울 따름이다. 더 나아가 필자를 포함한 외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만의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참여의 기회를 준 외대학보

나에게 학보는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 그 기회는 바로 '총학생회 공약이행 평가단'이다. 평가단에 대한 지원을 두고 고민하던 중 외대학보 953호 1면의 기사 '처음 그 약속, 변하지 않았나요?'를 보고 바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내 손으로 뽑은 총학생회 '새판짜기'가 약속한 공약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평가단에 지원하기로 했다. 1면에 나오는 통계조사 보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들의 공약 평가에 대한 지지를 볼 수 있었다. 외대학보가 '공약이행 평가단'을 모집하면서 동시에 공약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은 더 나은 캠퍼스를 위해 노력하는 학보라는 인식을 들게 했다.

2면에서 세계대학 평가 중에서 한국외대의 순위를 제시했는데, 우리학교의 발전을 알 수 있었다.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알리는 기사는 존재조차 몰랐던 나에게 외발추의 현 상황을 파악하게 해줬다.

3. 4면에서 서울배움터의 취업박람회 규모와 내용이 풍성해진 점을 알려주었지만, 처음으로 열린 글로벌캠퍼스의 취업박람회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대강당 사용료를 언급하면서 다른 학교의 사용료와 비교한 점이 좋았다. 올

해 기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기사를 통해 다양한 취지로서 기부금이 제공된다는 점을 알았다. 학생들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부금 사용내역의 공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놀라운 점이었다.

6면의 심층기획에서 현재 양 캠퍼스 학생들의 자취공간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 측과 학생 측의 입장이 상반되는 점을 보고 아직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듯했다. 모현에서 발생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총학의 공약인 '모현 플리스'의 빠른 실행을 절실하게 느꼈다.

취업한 2명의 한국외대 졸업생 인터뷰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취업에 관한 실제 경험담까지도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에서는 평가단뿐만 아니라 그 밖의 학생들에게도 참여를 촉구했다. 모든 학우들이 학교의 발전 과정에 참여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캠퍼스 내에는 지금도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지난호를 보고 나는 그러한 도움을 학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참여를 기원한다.



비둘기 칠판

서울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현승 오빠, 예량 언니, 신구 언니, 현정
나 해솔이야! 다들 저학년이기에 단순히 경험을 쌓자는 패기로 공모전에 도전했는데, 얼떨결에 본선에 올라간 후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 고생했던 그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날까지 다시 한 번 고생할 우리 팀원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따르고 아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써. 늘 술선수범해서 일해 준 우리 팀원들 너무 고맙고, 이렇게 소중한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그리고 먼 훗날에도 알지? 우린 항상 패기 넘치게! 즐겁게! 그리고 가끔씩은 다 같이 웃으면서 새벽에 모여 밤을 새며 회의하고 일했던 것들 평생 추억으로 간직하자. 우리 팀명처럼. 왜? 왜! 알지? ^_^
From. 윤해솔(사범·독고 11)



▲ 아래에서 왼쪽이 쓴소이다

글로벌캠퍼스에서 온 편지

To. 부산에서 복무 중인 승주 형에게
지금도 한창 복무 중인 우크라이나어과 10학번 승주 형! 나 상현이야. 형에게 편지 써준다고 하면서 한 번도 써주지 못해서 우리학교 학보에 남길래요. 그냥 흔한 손편지보다는 형한테 조금은 특별한 것 같아. 근데 막상 글로 쓰려니 이걸 보는 학우들도 많을 텐데 쑥스럽다. 난 지금 복학하고 이제 막 한 달째 접어들고있고, 학교 건물도 강의실도 너무 헛갈리지만 정말 즐겁게 학교생활하고 있어. 형이 이 글을 본다면 부러워 죽으려고 하겠지? 학교 다니니까 형 생각도 많이 나오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렇더라. 지금은 형한테 이런 편지를 써줄 여자친구는 없어도 나같이 의리 있는 동생이 있으니 복무 열심히 하고, 시간 금방 가니까 힘내. 이만 줄일게. 몸 건강히 잘 지내!
From. 한상현(동유럽·우크라이나어 10)



▲ 보낸이 한상현군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동문의 소리(9매) / 지난호를 말하다(7매) / 비둘기 칠판(3매)의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 학보우체국

교환학생, 군대 간 친구 등 외대학보를 받기 힘든 이들에게 학보를 보내드립니다.

소정의 선물

원고료 - 외대생 5,000원 / 매
교직원, 동문 10,000원 / 매
(1매 = 200자 원고지)

■ 증정품 - 매호 추첨을 통해 텀블러를 드립니다.

■ 십자말풀이

추첨을 통해 6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or www.oedaehagbo.com
연락처 ·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외대학보 · 서울 국제학사 401호 · 글로벌 학생회관 212호
편집장 강유나(영어·영어 11) 84yoonah@hufs.ac.kr

십자말풀이

"학보를 꼼꼼히 읽으면 답이 보인다"

①		①				④		③
		②						
					②③			
				⑤				
								⑤
④⑥								⑥⑦

가로열쇠

- ① 우리학교 법인 동원 육영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세곡동과 ○○○에 있다 <7면 참조>
- ②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람을 뜻하는 사자성어
- ③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말을 뜻하는 사자성어
- ④ 풀이나 나무의 줄기에 있는 연한 심. 사물의 중심에 이르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배추 ○○○ > 9면 참조
- 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스라는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한 꽃. 꽃말은 자기주의 또는 자기애다
- ⑥ 조선시대의 여류문인이자 율곡 이이의 어머니
- ⑦ 안중근 의사와 독립투사들을 소재로 한 뮤지컬 <연인 > 극과극 참조

세로열쇠

- ① 글로벌캠퍼스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열린 행사 <3면 참조>
- ② 다문화 구성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인식개선 차원의 교육 활동 <12면 참조>
- ③ 미주동문연합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우리학교 동문 <2면 참조>
- ④ 글로벌캠퍼스에 2014년 6월까지 완공예정인 신축 건물 <1면 참조>
- ⑤ 1박 2일에서 최근 활약을 보이고 있는 남자배우. △부활 △선덕여왕 △적도의 남자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
- ⑥ 영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

■ 십자말 풀이 정답을 10월 24일(수) 까지 이름, 연락처, 학보사에 하고 싶은 말과 함께 학보사로 가져오시면 추첨을 통해 각 배움터당 3명씩 총 6명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사설

여론을 외면하는 학생 자치

서울배움터 학생회가 위기에 몰렸다. 학교측의 '교내 음주문화 개선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아리에서 주점 개설을 강행했다가 해당 동아리 학생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징계 근거는 교내 음주 활동을 금지한 학생징계규정 제6조이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학생들의 여론은 총학, 단과대, 동아리 편이 아니다.

외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HUFSLIFE(후스 라이프, 이하 후라)에 올라온 수많은 댓글들은 압도적으로 학교측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 "학교가 오랜만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놓고 먹는 유흥보다는 공부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권을 외치기 전에 학생으로서 의무와 본분을 다하였는지 자문해봅시다 / 주점 금지는 일방적 통보였어도 적극 찬성 / 총학은 이미 신뢰, 민심을 다 잃었습니다 / 총학이 기성 정치편의 한심함을 닦았으니 어찌할까."

현 학생회의 위기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과거의 방식대로 현재를 이끌려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요즘 대학생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사회 운동에 젊음을 던지지 않고, 선배들의 위계에 복종하지 않으며, 사회적 부조리보다 개인의 행복과 학점 관리에 관심이 있다. 이기적인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관점은 '그냥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다.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고성을 지르며 이어지는 술판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원한다. 선배들의 강압에 밀려 술자리에 참석하고, 말술을 강요받는 문화에 순응하지 않으려 한다. '자치권' 같은 거창한 명분으로 주점문화를 합리화하면서 정작 대다수 학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외면하는 학생회가 설 자리는 좁아 보인다. 후라에 올라온 모 단과대 학생회장의 글 중 "공부라는 것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주점을 기획하고 경험하고 서비스하며 얻는 경험도 공부의 일부라고 봅니다."라는 주장 역시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지금의 학생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명분도 약하고, 여론도 잃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과와 자발적인 음주 문화 개선 노력,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원하는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생회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

서로 손잡는 그날을 위해

본지 이번호 1면의 축제 관련 기사와 7면의 주점 금지 기획 기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최근 들어 학교와 서울배움터 학생회 측의 대립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1면 축제 관련 기사에서는 교비를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회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2학기 축제 교비는 예정에 없었다는 학교 측의 주장과 교비가 예정대로 지급되지 않아 축제를 미룰 수 밖에 없었다는 학생회 측의 주장이다.

7면의 주점 금지 기획 기사에서도 둘의 대립은 극명하다. 지난 학기부터 끊임없이 학생회 측에 주점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주점 설치 금지를 강행했다는 학교 측과, 학교가 학생의 자체적인 노력을 무시하고 주점 설치를 금지시킨 것은 자치권 탄압이라는 학생회 측의 주장. 이 역시 각각의 입장에서 볼 때 서로의 주장은 진실이다. 하지만 이 대립을 지켜보는 학생들의 심정은 쓸쓸하다. 사인의 진실 관계를 떠나, 함께 학생들의 복지와 학교의 발전을 이뤄나가야 할 학교와 학생회 측이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금) 가천대학교 학생회에서 '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음주 문화 개선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자 학교도 바로 호응했다. 학교는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현수막 제작과 각종 홍보 자료 인쇄에 쓰라며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줬다. 이 가천대학교의 사례에서 '음주 문화 개선 캠페인'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학교가 호응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보자. 학교와 학생회가 함께 뜻을 모아 행동하는 모습, 현재 우리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 아닌가. 학교와 학생회가 손잡고 서로의 강점을 합치는 날은 언제쯤 올까. 아직은 아득하지만 하다.

지난호 십자말풀이 당첨자

서울배움터

강준수(서양어·이탈리아어 10)
심애리(사회·자전 09)
이기은(상경·경제 09)

글로벌캠퍼스

박누리(통번역 중국어 12)
김한울(동유럽 세크어 11)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강유나 부장 문나운 우보연 홍규원

정기자 권수정 김경보 김계선 김정원 박준서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채윤 홍진아

조교 이현주 정진경

제작 (주)경보기획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우리학교 다문화교육원장 양민정 교수

2012년 현재, 국내 다문화인구가 130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다문화가정은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착 우리와 다문화가정 사이의 벽은 높지만 하다. 그 벽을 허물고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 앞장서는 '다문화교육'의 선구자가 여기 우리학교에 있다. **편집자주**

'130만 다문화사회'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은 다문화

"다문화인들이 못살아서 이쪽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것이고, 농촌사회 공동화로 불균형적인 농촌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다문화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양민정 교수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현상 등으로 인해 현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다문화사회가 형성됐다. 최근에는 우리사회의 다문화구성원이 130만 명이 넘는 수준에 이르며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들 또한 거세지고 있다.

진정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길, '다문화교육'

다문화구성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학교 양민정 교수는 우리사회의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양 교수는 "우리학교 교육대학원 및 다문화교육원 원장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포럼 교육문화분과 위원장으로 발탁돼 현재 우리사회의 다문화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양 교수는 "결혼이민자들의 정착과 그 자녀들의 안정적 성장, 우리 내국인들과의 소통과 이해가 현재 다문화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큰 이슈"라며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이민국가로 나갈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등이 현재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다"며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국민과 이주민 사이의 이해와 통합이 가장 먼저 필요하며, 다문화교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정보 제공 → 깨달음 → 이해·소통·변화 맥락의 다문화교육'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이란 기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교육형태이며 특별히 고안된 정이나 개념은 아니다. 다문화구성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개선 차원의 교육, 두 가지 범주에서 접근할 수 있다. 양 교수는 "전자가 다문화가정을 소수자로서 접근하는 복지 차원의 교육이라면, 후자는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중시함으로써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시키는 교육인 것"이라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를 우리학교 다문화교육원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학교 다문화교육원은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제공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포럼에서 다문화교육 사업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양민정 교수

"'다문화교육'에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본래 한국어교육과 교수였던 양 교수는 "다문화사회라게 하나의 사회추세이기도 하고 다문화교육의 출발점이 언어소통이기에 관련 교육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며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저는 다문화교육에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다문화교육에 뛰어들게 된 것이지만 전공을 살린 문화교육을 하면서 사명감을 느꼈지요" 양 교수는 한국 고전문학을 전공해 현재 다문화교육원에서 한국 고전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우리 고전문학을 활용해 다문화구성원에 한국 문화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건 국내에선 양 교수가 유일하다. 양 교수는 "짜막한 단군신화를 통해서도 우리의 전통, 원형적인 가치관 등 기본적인 문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라며 "우리 고전문학을 분석해서 소개하고 교육시키면 다문화구성원들이 한국의 현 문화들을 이해하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바리데기 설화같은 한국 고전은 다문화 이주여성의 여성성 교육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평범하게 시집을 왔지만 지혜를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우리사회 그 어느 위치에도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지난 해 국내 최초로 다문화교육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다문화사회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지만 △교육 △복지 △행정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할 다문화전문가를 양성할 상위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며 "다문화교육전공 석사과정 신설은 점차 증폭되는 다문화사회의 정착과 통합에 기여할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것이죠"라고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다. 현재 다문화교육전공 석사과정은 이번 학기로 두 학기제를 맞이하며 21명의 예비교사들이 재학 중이다. 앞으로 몇 년 후 이들은 다문화사회 곳곳에서 대표 교육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구성원들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큰 축

이외에도 양 교수는 다문화교육원을 주도해 여성가족부는 물론 국내 우수 기업들과 함께 각종 다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학교의 특성을 살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이다. 결혼이민자들에게 통번역 교육을 실시해 전국 각지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족과 사회구성원들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LG 사랑의 다문화학교 언어인재 프로그램'에서는 우수한 다문화자녀들을 선발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부한 베트남 출신 다문화자녀 한 명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전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베트남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었어요" 양 교수는 회상에 잠겼다. "그런데 2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베트남어가 자신의 큰 장점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나라와 언어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생기니 성격도 변화한 덕분에 교우 관계도 원만해져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는 학교에서 반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서머했었던 엄마와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외가식구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일화를 들려주는 양 교수의 표정에서 뿌듯함을 엿볼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만 잘 하고 성장한다면 오히려 한 나라에만 살고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출발할 때부터 역량이 훨씬 큰 것이죠" 양 교수는 다문화자녀들이 앞으로 두 나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다문화자녀교육이 중요한 까닭은 자칫 이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받을 경우,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양 교수는 몽골 결혼이주여성 출신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이리'의 사례를 들며 다문화가정에서의 인재 발굴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많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이리와 같은 인재로 거듭나는

것 또한 저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문화자녀 및 엄마들이 사회의 큰 구성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양 교수는 다문화자녀들이 많은 초·중·고등학교의 현실을 설명하며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에만 국한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자꾸 차별을 뉘우. 우리가 미국인과 다르다고 하는 것에는 은연 중 선민의식이 담겨있지만, 베트남인과 다르다고 할 때는 차별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차별의식, 편견을 기본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양 교수는 성공한 다문화사회를 위해서는 '한 가족 의식'이 그 기본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이 한국인이 돼주면 우리도 그 나라를 이해해주는 쌍방의 소통이 필요해요. 쌍방의 교육을 토대로 다문화에 대한 국내인의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문화구성원들을 정서적으로 한 가족으로 품고 나도 같은 일원으로서 감수성을 제고하려는 시민정신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에서 다문화공헌 단체상을 수상한 양민정 교수가 김준수 아시안프렌즈 대표와 함께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다

다문화교육원은 대학기관으로서 유일하게 다문화교육 사업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며 <동아 다문화상 단체상> 등을 수상했다. 양 교수는 "다문화사회에 한 줄기 빛이라도 드리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늘 새롭게 합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시에 '건강한 다문화사회 만들기'는 '내 이웃(다문화 가정)을 내 가족과 같이,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한 몫임을 강조하며 미소지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양민정 교수는...

- 한국외국어대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교수
-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원장
- 한국외국어대 다문화교육원 원장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포럼 교육문화분과 위원장